농림축산식품부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보도 일시	2022. 3. 16.(수) 11:00 3. 17.(목) 조간	배포 일시	2022. 3. 16.(수) 09:00
담당 부서	농업생명정책관실 농기자재정책팀	책임자	팀 장 이종태 (044-201-1891)
		담당자	사무관 서정우 (044-201-1892)

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이렇게 지원됩니다

- 농업인 영농안정을 위해 무기질비료(일반용, 원예용) 지원 -

주요 내용

□ 1월 3일부터 일반용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% 이내를 지원하고 있으며, 3월 28일부터는 원예용 무기질비료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

□ 농업 토양환경 보전 및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농촌진흥청의 비료사용 처방서 또는 표준시비량에 따른 적정 시비를 당부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중국의 무기질비료 수출 전 사전검사제도 도입,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국제 비료 원자재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농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**'2022년 정부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'**을 반영하여 **1월 3일부터 무기질비료의 가격 인상분에 대해 지원**하고 있다.

이와 함께 농협경제지주에서 지난 3월 11일에 **원예용 무기질비료 판매 기준가격 산정 작업을 완료** 후 현재 **비종별 보조금액 산정, 농업인별 물량 추가 배정 및 판매관리시스템 정비작업을 진행 중**이다. 해당 작업이 완료되는 **3월 28일부터는 원예용 무기질비료도 순차적으로 지원**할 예정이며, 판매관리시스템 정비 전에 비료를 구매한 농업인에 대해서도 지역농협에서 소급하여 가격을 보조할 계획이다.

농업인별 지원물량은 **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% 이내에서 지원**하는데 이는 **무기질비료 과다 사용**에 따른 **토양 산성화 및 하천 부영양화를 방지**하고, 비료 산업 분야도 **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보조**를 맞추기 위해 **95% 이내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을 도모하려는 목적**이다.

* 지원 예상 물량(추정): 1,034천 톤(일반용 721천 톤, 원예용 313천 톤)

한편 농지매입 등으로 작년보다 **재배면적이 증가한 농업인, 작목 전환에 따라 비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농업인** 등이 95% 이상의 비료를 추가로 구매하고자 할 때는 재배면적 증가, 작목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**'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' 를 농협에 제출**하면 농협은 **표준시비량으로 기준으로 소요 물량을 산출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비료를 판매**하고 있다. 또한 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'비료사용처방서' 를 농협에 제출하면 처방서에 따른 물량에 대해서도 가격보조를 받아 비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.

이와 함께 **최근 3년간 농협에서 비료구매 내역이 없는 농업인, 신규 농업인(귀농, 창업농 등)**도 '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' 를 농협에 제출하면 같은 방법으로 농협에서 무기질비료 필요 물량을 산출하여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.

참고로 **무기질비료 지원 비율**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실시되었던 **화학비료 가격 및 수급안정 사업(2008~2009년)에서 정부와 농협이 80%를 지원했던 사례를 고려하여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**이라고 밝혔다.

농식품부 이종태 농기자재정책팀장은 **"올해 초 일반용 무기질비료 지원에 이은 원예용 무기질비료 지원으로 일정부분 영농에 도움이 될 것**이라고 기대한다" 라고 하면서, **"농업 토양환경 보존과 농가 경영비 절감**을 위해 농촌진흥청(농업기술센터)의 비료사용처방서 또는 표준시비량 확인 등을 통해 **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 줄 것"** 을 농업인에게 당부하였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